『東國歷代總目』의 書誌學的 硏究

The bibliography study on *Tong Kuk Yuk Tae Chong Mok*

김 순 희 (Soon-Hee Kim)*

〈목 차〉

Ⅰ. 緖 言
Ⅱ. 洪萬宗의 著述과 思想
1. 著述
2. 道家思想
3. 自主的 認識
Ⅲ. 『東國歷代總目』의 編纂 背景
Ⅳ. 『東國歷代總目』의 構成上 特徵
1. 形態 書誌的 分析
2. 記述 方式
3. 典籍 參考의 例
4. 引用書目 整理
Ⅴ. 『東國歷代總目』의 價値와 意義
Ⅵ. 結言

초 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 저술가인 洪萬宗이 1705년에 편년체로 저술한 『東國歷代總目』을 대상으로 하였다. 『東國歷代總目』은 그 이전의 史書類와는 달리 자주적 인식의 견지에서 檀君에서 朝鮮朝 宣宗에 이르기까지 全大史를 대상으로 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저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東國歷代總目』의 편찬경위와 형태서지적분석, 기술방식과 인용서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東國歷代總目』의 가치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s based on *Tong Kuk Yuk Tae Chong Mok* that Hong, Man-Jong, a writer of the later Cho-Sun dynasty, wrote in the style of chronicle in 1705.

Tong Kuk Yuk Tae Chong Mok, different from the former history book, described briefly the whole history in the autonomous view from king Tan-Kun to king Sun-Jong, the Cho-Sun dynasty.

There for the author appraises the sense and value of *Tong Kuk Yuk Tae Chong Mok*, by surveying the publishing background, bibliographic analysis, descriptive method, and cited book on *Tong Kuk Yuk Tae Chong Mok*.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Ⅰ. 緖 言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한꺼번에 살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중에서 중요한 사실만을 발췌·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한 경우가 많았다. 본고의 대상인 『東國歷代總目』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서책은 書名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역사 중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東國歷代總目』의 편찬자인 洪萬宗(1643~1725)은 조선 후기 著述家요, 문인으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그는 비록 관직이 현달했거나 학자로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국문학계에서 그의 저술과 관점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1)]

洪萬宗은 豊山人으로 字는 于海이며, 號는 玄默子·夢軒·長洲 등이다. 그의 증조 鸞祥은 吏曹佐郎이었으며, 조부 輔는 昭武勳에 책록되어 豊寧君에 봉하여졌고 左參贊을 역임하였다. 부친 柱世는 생원과 문과를 거쳐 영천군수를 지냈다. 이렇게 洪萬宗의 가문은 확실한 사대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外家도 外祖父가 이조참판이었으며 외숙이 左議政 鄭知和(1613~1688)였다는 사실과, 妻父도 예조참판을 지낸 夏興君 曺漢英(1608-1670)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출세가 보장되었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홍만종은 병약한 탓으로 일생동안 병고에 신음하였으며 33세(肅宗 元年 乙卯, 1675)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평생을 저술에 몰두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목할 만한 여러 저술을 완성하였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東國歷代總目』은 홍만종의 저술 중에서도 역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것이다. 그는 시평과 시화, 국문시가 등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처럼 한국의 역사를 대상으로 책을 편찬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역사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홍만종의 역사서인 『東國歷代總目』을 대상으로 하여 이 서책의 편찬경위와 서지적 형태, 기술방식 그리고 가치와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東國歷代總目』은 서책의 성격상 여러 사서와 인접 기록을 참고하여 저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을 편찬하면서 인용한 書目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

1) 姜銓燮, 『洪萬宗研究』 (서울 : 민속원, 1998)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국문학계에서 홍만종의 생애와 그의 비평세계, 그리고 저술 및 편찬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논문을모아 편찬하였다.

Ⅱ. 洪萬宗의 著述과 思想

1. 著述

『豊山洪氏大同譜』에는 홍만종의 저술로 『文集』, 『小華詩評』, 『旬五志』가 집에 보관되어 있다[2]고 되어 있는데 현재 『洪萬宗全集』이라는 제명으로 영인·간행 된 것을 보면, 여러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나 왕성한 저술욕구를 감안할 때 이 밖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저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견해를 참고하여[3] 홍만종의 저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 序文에 著述 사실이 밝혀진 것

- 『海東異蹟』 (1666, 24세)
- 『小華詩評』 (1675, 33세)
- 『旬五志』 (1678, 36세)
- 『詩評補遺』 (1691, 49세)
- 『東國歷代總目』 (1705, 63세)
- 『增補歷代總目』 (1706, 64세)
- 『豊山洪氏族譜』 (1909, 67세)
- 『詩話叢林』·『附證正』 (1712, 70세)

B. 序文에 著述 年代가 밝혀 있지 않은 것

- 『黃葉志諧』

C. 著述 사실은 분명하나 책이 있음을 알 수 없는 것

- 『夢軒集』(文集)
- 『古今詩律選』

D. 著書로 거론된 것 가운데 책이 전하는 것

2) 『豊山洪氏大同譜』 (大田 : 農耕出版社, 1985). 卷4.
"有文集 及小華詩評 旬五志 藏于家."
3) 金善祺, "洪萬宗論", 《洪萬宗研究》, p.157.

- 『古今笑叢』
- 『續古今笑叢』
- 『東史』
- 『東國經濟野言』

E. 冊은 전하지 않으나 著書로 거론된 것

- 『東國樂譜』
- 『古本靑丘永言』
- 『東國俗諺』
- 『別號類聚』

홍만종의 저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관심이 우리의 역사와 문학, 풍습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가 국학의 전 분야에 대단한 애호를 갖고 있었던 저술가임을 알 수 있다.

2. 道家思想

홍만종은 유학이 치국의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조 시대에 도가사상을 신봉하였던 인물이다. 그가 도가적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홍만종이 즐겨 사용했던 號인 長洲·玄默子·夢軒 등이 도가적 의미가 강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長洲는 東方朔의 『海內十洲記』에 나오는 十洲 중의 하나로서 일명 靑丘라고 하는 곳으로 천상의 신선과 선녀들이 잠시 이곳에 내려와 노닌다고 하는 도가 전설 속의 명승지이다. 그리고 玄默子의 玄은 흔히 노장사상과 관련된 사상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도가의 상징적 단어이다. 그리고 夢軒도 유명한 莊子의 蝴蝶夢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도가적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홍만종은 평생 병고에 시달리던 까닭에 도가적 양생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였지만 그는 본래 道家書를 좋아하여 젊어서부터 독서에 몰두하였다.

> 내가 소시부터 도가를 좋아해서 『參同契』, 『黃庭經』 등의 서적에 구미가 당겨 맛을 본지 대개 여러 해가 되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말았으니 정선고의 '솥도 그릇도 이미 깨져 버렸다'는 말을 외며 절로 탄식만 한다.[4]

4) 洪萬宗, 『旬五志』.

홍만종은 위의 기록과 같이 여러 도가서를 섭렵했는데 그는 『海東異蹟』을 저술하면서 많은 도가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진술을 입증하였다. 『海東異蹟』에 인용된 도가계통의 서적으로 『參同契』·『黃帝內外玉景經』·『黃帝陰符經』·『金碧龍虎經』·『崔公入藥鏡』·『胎息心印同古定觀』·『大通淸淨』·『黃庭經』·『道德經』·『陰符經』·『吾眞篇』·『玉樞經』·『運化玄機』·『 醫經要覽』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가 어려서부터 도가서를 좋아하여 많이 읽었으며, 이러한 독서로 인해 그가 도가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홍만종이 도가사상에 빠져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의 스승인 東溟 鄭斗卿(1597-1673)의 영향 때문이었다. 정두경은 집안 전체가 도가에 심취했던 인물로 그의 조부가 『海東傳道錄』에 나오는 鄭之升이고, 신선수련술의 요체인 『龍虎秘訣』의 저자 北窓 鄭磏과 『東醫寶鑑』 편찬에 참여한 古玉 鄭碏이 그의 再從曾祖父이다.

홍만종은 48세나 연상인 정두경을 만나 사제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정두경은 그의 문학적 창작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제자로 공언할 정도[5]였다. 정두경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홍만종은 柏谷 金得臣(1604-1684)·晩洲 洪錫箕(1606-1680)·休窩 任有後(1601-1673) 등과 교유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홍만종 보다 4·50세 정도 연장이었으나 내단을 수련하는 도우로서 망년지교의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홍만종의 일생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가 許堅의 옥사에 연루되어 削去仕版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 38세(肅宗 6년 庚申, 1680)였는데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었다. 3년 뒤 귀양지에서 사면되었으나 이 사건이후 그는 더 이상 관직이나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도가적 생활 태도에 입각하여 여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홍만종이 도가사상에 침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도가 사학을 바탕으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었기[6]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단군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홍만종은 유학을 공부하여 진사시에 통과는 하였지만 유학적 이데올로기와 사유체계를 추종하지 않았다. 그는 젊어서부터 읽었던 도가서의 영향과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그의 의지 등으로 인하여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단에 속한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자신의 세계에 만족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를 도가적 인물로 규정하였으며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견지했던 도가적 인식은 그의 주체적 역사인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余少好道家 其於參同黃庭等書 朶頤染指 盖有年所, 而到今齒缺髮禿 每誦鄭仙姑鼎器已敗之說 不覺咨歎".

5) 金得臣, 『終南叢志』, 『詩話叢林』.
"洪萬宗 早病廢讀 不能專工 而從東溟鄭君平學 故其詩 薰芳染彩 格調淸峻……君平見之曰 此盛唐語也 吾當傳衣鉢於汝也."

6) 陳甲坤, "玄默子 洪萬宗의 道家思想", 《 洪萬宗硏究》, pp.129-149.

3. 自主的 認識

홍만종은 도가사학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여러 곳에서 확인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단군에 관한 언급에서 그의 자주적 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홍만종은 24세 때 지은 『海東異蹟』에서는 단군에 대하여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불명확하게 표현했으나[7] 36세에 저술한 『旬五志』에서는 '우리 나라 백성의 비조'라고 단정하여 단군이 실존했던 인물임을 인정하였다.[8] 그리고 63세에 저술한 『東國歷代總目』에서는 '맨 처음 나타난 신군이요, 우리 나라 계통의 우두머리'라고[9] 확언하였다.

이러한 홍만종의 견해는 조선 후기의 다른 역사서들과 비교해 볼 때 주목된다. 조선 후기의 역사서 중에서 단군 조선을 명실상부한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서술한 사서는 許穆의 『東史』 李鍾徽의 『東史』 韓致奫의 『海東歷史』 그리고 홍만종의 『東國歷代總目』이 있다. 그리고 箕子를 정통의 시작으로 서술하면서 단군을 부기의 형식을 서술한 사서로 洪汝河의 『東國通鑑提綱』 安鼎福의 『東史綱目』 등이 있다.[10] 그런데 단군을 역사의 시작으로 본 관점이 더 많은 것은 기자 중심의 상고사 인식체계에서 벗어나 단군 조선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 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 홍만종은 그러한 논의의 대표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東國歷代總目』을 저술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홍만종은 이 책의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저술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였다.

> 기준이 비록 위만에게 쫓겨 나라를 잃고 도읍을 옮겼으나 오히려 기자의 제사를 이어 받들었음이 마치 한나라의 유비가 촉에 나라를 세웠으나 정통을 잃지 않은 것과 같다. 이제 또한 주자의 강목의 예에 의거하여 기준을 정통으로 기록한다.[11]

> 위만이 비록 고조선의 옛 땅에 웅거하였으나 정통이 기준에게 돌아갔으니 가히 기준과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없으므로 한 글자를 내려서 썼다.[12]

---

7) 洪萬宗, 『海東異蹟』.
"固不可謂之人也 亦不可不謂之人也."

8) 洪萬宗, 『旬五志』.
"檀君乃東方生民之鼻祖."

9)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檀君箕子 東國通鑑 以外紀載之 盖緣世代事蹟 不能詳也 然檀君乃首出之神君 箕子卽立教之聖后 歷年始終 猶可考信 故尊而書之 於東國統系之首."

10) 全炯澤, "朝鮮後期 史書의 檀君朝鮮 敍述", 《한국학보》 21, (1980. 겨울)), p121.

11)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箕準雖爲衛滿所逐 失國徙都 尙繼箕子之祀 則猶漢昭烈之國於蜀 而不失正統 今亦依朱子綱目 例以正統書之."

12) 上揭書, 凡例.

이 밖에도 홍만종은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서 우리 나라의 산수가 천하의 으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며[13],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말로 부르는 노래나 문학은 중국의 그것과 관계없이 훌륭한 문학이 된다고 생각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歌曲은 오로지 方言만을 사용하고 간혹 문자를 섞었으나 대개 언문으로 된 것이 세상에 전한다. 대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그 나라 풍속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歌曲이 비록 中國의 樂譜와 비등하지는 못할지라도 또한 가히 보고 들을 만한 것이 있다. 『象村集』에 보면 申欽이 芝峯의 『朝天錄歌詞』에 대해서 말하기를 "中國의 이른바 歌詞라는 것은 古樂府와 그 시대의 소리를 管絃에 올려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것은 지방의 소리 그대로를 문자에 맞추어 놓은 것이다. 이런 점이 비록 중국과 다르긴 하지만 그 감정과 意境이 다 담기어 있고 五音이 조화되어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詠歎淫佚하게 하여 손발을 덩실거리며 춤추게 만드는 점은 결국 마찬가지다"하니 참으로 믿을 만한 말이다. 나는 그 長歌 중 表表히 세상에 성행하는 것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評語를 가해 보기로 한다. 14)

그리고 그는 漢詩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지명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 나라의 지명을 사용하면 시를 버리게 된다는 일반적인 설을 강력히 비판하고 실제 우리 나라의 지명을 넣어 시가 아름답게 완성된 예를 들어 증명할 정도였다.

>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 中國地名은 모두 文字로서 시에 넣으면 문득 아름답다. '九江의 봄은 초원밖에 있고 三峽의 저물은 뱃전에 있네.雲夢澤에서 증기가 나고 파도는 岳陽城을 흔드네'와 같은 句가 그러한 데 다만 몇 字만 더해도 능히 살아있는 빛깔이 되게 한다. 우리나라 地名은 모두 方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詩에 넣음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李容齋의 天磨錄詩에 '가랑비는 靈通寺에 내리고 태양은 비스듬히 滿月臺를 비추네'라 하였고, 盧蘇齋의 漢江詩에 '봄은 楮子島에 깊었고 달은 濟川亭에서 떠오르네"라 했으니, 시가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오직 鑑錘之妙에 있을 뿐이다.15)

"衛滿雖據朝鮮舊地 正統歸於箕準 則不可與準比並 故低一字書之."

13) 洪萬宗, 『海東異蹟』.
"我東方山水 甲於天下 世稱三神山 皆在域中."

14) 洪萬宗, 『旬五志』.
"我東人所作歌曲 專用方言 間雜文字 率以諺書 傳行於世, 盖方言之用 在其國俗 不得不然也. 其歌曲 雖不能與中國樂譜比並 亦有可觀而可聽者. 按象村集 其書芝峰朝天錄歌詞曰 中國之所謂歌詞 卽古樂府竝新聲 被之管絃者 俱是也. 我國則發之藩音 協以文語 此雖與中國異 而若其情境 咸載宮商諧和, 使人詠歎淫佚 手舞足蹈則其歸一也云 信哉言乎. 余取其長歌中 表表盛行於世者 略加評語如左."

15) 洪萬宗, 『小華詩評』, 卷上.
"世謂中國地名 皆文字入詩 便佳 如九江春草外 三峽暮帆前 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等句 只加數字 而能生色 我東方 皆以方言成地名 不合於詩韻 余以爲不然 李容齋天磨錄詩 細雨靈通寺 斜陽滿月臺 盧蘇齋漢江詩 春深楮子島 月出濟川亭 詩豈不佳 惟在鑑錘之妙而已."

이처럼 홍만종의 진술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그는 매우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東國歷代總目』을 저술했다는 점이다.

Ⅲ. 『東國歷代總目』의 편찬 배경

홍만종이 『東國歷代總目』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申琓(1646-1707)의 부탁이었다. 신완은 찬자미상의 『歷代總目』을 입수하였는데 이 책은 중국의 역사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만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이다. 아쉽게도 『歷代總目』에는 편찬자나 편찬시기 및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序文이나 跋文이 없어서 배경을 전혀 고찰할 수 없다. 다만 편찬자가 명대의 인물이라는 사실만이 확실하다.[16] 신완은 이것을 보고 우리 나라의 역사도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을 홍만종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영의정인 신완이 홍만종에게 이러한 일을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홍만종의 나이는 63세였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이 때의 홍만종은 세상의 모든 명리를 도외시하고 오직 도가적 양생술과 전문적인 저술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마침 신완은 그때 芸閣(校書館)의 책임자인 提調를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완이 주변의 여러 학자나 관리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만종에게 이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에 홍만종의 능력과 명성이 두루 알려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17] 신완은 당파나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물에 대한 가장 엄정하고 객관적 평가인 실록 소재 卒記에 의하면 신완은 매우 공정한 인물로 평가되었다[18]. 신완이 홍만종과의 개인적 친분에

16) 姜銓燮 교수의 소장본에 의하면 중국 역사의 시작인 唐堯에서부터 明代 章宗까지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데, 부록으로 地誌 9張이 첨부되어 있으며 본문은 44張인 木版本이다.

17) 大谷森繁, "洪萬宗의 著述과 生涯", 《洪萬宗研究》, pp.68-71. 에 의하면 신완이 홍만종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8) 『국역조선왕조실록』, 숙종 33년 2월 25일.
"平川君 申琓이 졸하니, 나이 예순 둘이었다. 신완은 성품이 인자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즐거워 평소에 빠른 말씨와 급한 기색이 적었으며, 또 종족에게 돈독히 하고 친구들에게 독실하였다. 젊어서 조지겸(趙持謙)의 일대(一隊)와 잘 지냈는데, 뒤에 그 병심(秉心)이 바르지 못함을 보고는 드디어 소원(疎遠)하게 대하였으며, 사류(士類)와 더불어 서로 사이가 좋아 힘써 명의(名義)를 주장하였다. 전석(銓席)을 관장하게 되자 부익(扶抑)이 반드시 공의(公議)를 따랐는데, 이 때문에 사당(邪黨)들이 깊이 질시(嫉視)하여 이세근(李世瑾)의 탄핵(彈劾)이 있기까지 하였고, 또 임부(林溥)와 이잠(李潛)에게 무함·날조를 받아 대죄(待罪)한 채 해를 넘

의해서 이 일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완은 이러한 저작을 편찬한다는 것이 중차대한 사실임을 알고 그 당시에 가장 능력있는 적임자를 찾았을 것이며 결국 홍만종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東國歷代總目』의 편찬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서문에 이러한 사정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 대저 세상에서 전고와 사실을 말하는 자들은 대개 가까운 것은 자세하지만 먼 것은 소략하니 이것은 그 형편이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일에 대하여는 간혹 능히 모든 것을 자세히 기억하고 외우지만 우리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는 망연히 그 줄거리조차 들지 못하니 크고 넓게 통했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또한 이것을 근심하였다.
>
> 지난번에 영의정 평천군 신공이 운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전적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우연히 명나라 사람이 편찬한 『歷代總目』을 보고 기뻐하여 우리 나라의 역사도 취하여 이것을 모방하여 한 책을 만들고자 하면서 나에게 명령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이 책의 체재는 비록 역사가가 아니더라도 그 편찬 차례의 순서를 정리한 다음에야 가히 오래된 것을 고찰하여 믿을 수 있으니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사양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이 억지로 맡겼다.[19]

홍만종은 『東國歷代總目』을 완성한 뒤에 신완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중국의 역대총목을 보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20] 홍만종은 이 일까지 완수하게 되었다.

Ⅳ. 『東國歷代總目』의 구성상 특징

1. 形態書誌的 分析

『東國歷代總目』은 筆寫本 및 金屬活字本인 顯宗實錄字本이 전해지고 있다. 필사본은 홍만종

겨 마침내 병한(屛閑) 가운데서 졸(卒)하니, 세상에서 이 때문에 애석하게 여겼다"

19)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序.
"夫世之譚故實者 率詳近而略遠 盖其勢然也 我東之人不然 於中國事 或能纖悉記誦 而言及東國 則茫然不擧其梗概 號弘博者 亦患之 洒者 上相平川申公 職摠芸閣 心留墳典 偶得皇明人所撰 歷代摠目 覽而悅之 欲取東事倣成一書 以命不佞 不佞復曰 玆書之體 雖非史家 比抑其纂次有序 然後可爲久遠考信 不佞非其人也 敢辭 公强委之不已."

20) 上揭書.
"向不佞辱平川相公命 纂我東歷代總目 旣成相公 見而印可 復謂不佞曰 東事賴此粗完 而顧中國歷代總目 尙多闕漏 子若補其疎淪 與此幷傳 可無恨也 不佞敬諾而退."

전집으로 영인 간행 된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비롯한 몇 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필사자와 필사연도를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강전섭 교수의 소장본인 顯宗實錄字本을 텍스트로 삼아 서지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東國歷代總目. 洪萬宗(1643-1725)編. 肅宗31年(1705).
2卷 1冊(89張). 圖. 活字本(顯宗實錄字) 33.2×20.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 25×17.5cm. 11行20字. 注雙行.
版心 : 上下 內向花紋魚尾.

序 : 上之三十一年 (肅宗31. 1705) .... 洪萬宗謹識.
內容 : 卷首(6張) (序), 東國歷代傳統之圖, 歷代建都之圖, 凡例.
卷 上(55張) : 檀君朝鮮 ~高麗.
卷 下(20張) : 本朝朝鮮 ~顯宗大王.
附地誌(8張) : 序, 京都 및 八道地誌.

2. 記述方式

『歷代總目』의 체재를 본 받아 저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洪萬宗은 『東國歷代總目』을 저술하면서 編年體의 기술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먼저 歷代紀年을 적고 다음에 중요사실을 간추려 기록하였는데 그 방법은 마치 『春秋』나 『綱目』 등의 史筆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21] 중요항목별로 분류하여 기술방식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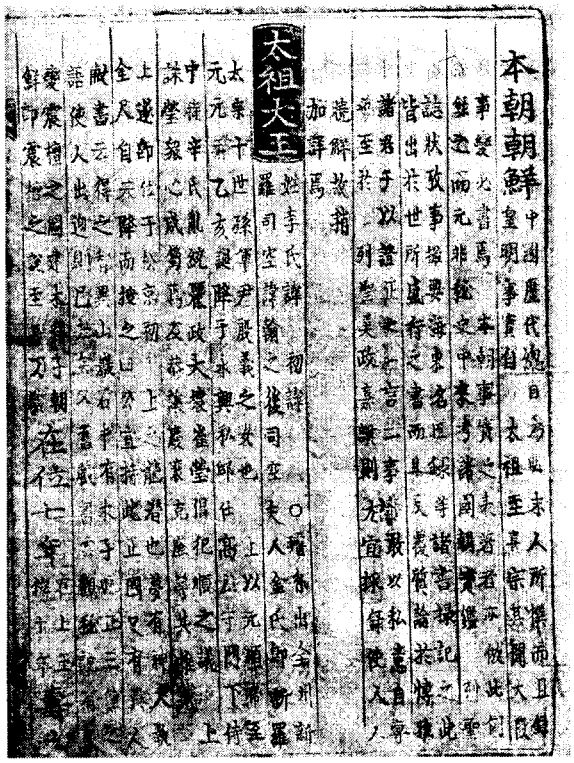
1) 王朝名

이 역사서에 의하면 한국의 왕조는 檀君朝鮮과 箕子朝鮮을 거쳐 三國, 統一新羅, 高麗, 朝鮮으로 이어져 왔다. 홍만종은 衛滿朝鮮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樂浪·臨芚·玄菟·眞番의 漢四郡이나 平州都督府와 東府都督府의 二府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하였으나 왕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왕조별 항목에서 王朝名은 上欄에 한 자 내려서 기록하였는데 위만조선·한사군·이부 등은 두 글자 내려써서 확연히 구분해 놓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22]. 三韓의 경우에는 특별히 왕조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삼국이전의 역사를 증명하는 기간으로 인정하여

21) 趙鍾業, "洪萬宗의 著述", 『洪萬宗研究』, p.47
22)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四郡二府 乃郡邑之制 無君長可記 故並低一字書之"

수록해 놓았는데 辰韓과 弁韓은 馬韓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여 馬韓이란 글자는 상란에 붙여 쓰고 나머지는 한 글자 내려썼다[23]. 그리고 三韓의 기록이 위만조선의 기록보다 앞서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왕조명을 적은 바로 밑에 왕조의 도읍지를 大字로 기록하였으며 古地名일 경우는 주해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각 왕조명의 유래를 반드시 소개했는데. 小字雙行으로 되어 있다. 홍만종이 왕조명의 유래를 기재해 놓은 것은 그의 자주적 역사관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東國歷代總目 顯宗實錄字本 (姜銓燮 所藏)〉

2) 王號

왕호는 상란에 붙여 기록하였다. 단군조선의 경우는 왕호가 단군뿐이며, 기자조선에는 별다른 왕호가 없이 箕子·箕否·箕準 등 왕명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三國時代의 왕호는 상란에

23)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三韓雖一時竝立 正統旣歸馬韓 況辰韓本馬韓之所割與 而又常以馬韓人作主 弁韓則東史諸書 皆稱屬於辰韓 辰弁之於馬韓 蓋是屬附 故並低一字書之"

한 글자 내려 쓰여 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文武王에서부터는 왕호를 상란에 붙여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삼국시대처럼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 왕조를 위주로 역사를 정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것은 주자의 『綱目』의 체재를 본받은 것이다.[24]

그리고 삼국과 통일신라, 고려의 왕들은 왕호 밑에 왕의 實名과 父系를 쌍행으로 첨부해 놓았는데, 조선의 왕들은 왕호 밑에 諱 字를 쓰고 밑에는 공란으로 남겨 놓았다. 왕호명을 기록하는데 있어서도 고려 이전까지는 王이라고만 하였는데 조선조의 왕들은 大王이라고 경칭하였다. 특히 신라의 경우 金富軾은 『三國史記』에서 신라고유의 왕호였던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 등의 칭호를 사용했으나, 홍만종은 崔致遠의 『年代歷』과 權近의 『史略』 등의 체제를 본받아 단지 왕이라고만 칭하였다[25]. 왕의 죽음을 기록하는 데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고려 이전의 왕들은 薨 字를 쓰고, 조선조의 왕들은 昇遐라고 하였다[26].

그런데 신라시대의 세 女王이나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고려말의 禑王과 昌王은 다른 왕호처럼 쓰지 않았다. 세 여왕은 각각 善德主·眞德主·眞聖主라고 표기했고 글자도 大字가 아닌 小字로 썼으며, 禑王과 昌王은 辛禑·辛昌으로 표기했고 글자도 小字이다. 홍만중이 이렇게 차등을 두어 표기한 이유도 주자의 『綱目』의 先例에 의거한 것이다[27]. 그러나 조선시대의 燕山君과 光海君은 각각 大字로 廢王燕山君·廢王光海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諱 字가 없이 實名이 添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卒 字를 썼는데 이는 魯山君으로 격하된 端宗도 魯山君卒이라고 표기하였다.

3) 주요기사 수록

각 왕의 치세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실을 수록하는 방식은 먼저 재위기간과 享年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白圈을 둔 뒤에 각각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기사의 핵심은 大字로 쓰고 그 밑에 小字雙行으로 내용을 자세히 첨부해 놓았다. 다만 특이하게도 干支는 竝書로 쓰여져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나 국가적 사

---

24)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新羅建國 二十一年而句麗興 四十年而百濟興 三國開創 差有先後 而位均體敵 不能主一 故依綱目 無正統例 皆低一字書之 至新羅文武王 統三爲一 故始以正統書之."

25)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金富軾三國史 高句麗百濟則皆稱王 獨於新羅 稱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 蓋麗濟則本無他號 故稱王 新羅則從其本號 而於其記事乃書王 旣違史體 且似班駁 崔致遠年代歷 及權近史略 三國竝書王 從兩書之例"

26)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君喪 麗朝以上 依東史例 書薨 國朝 則依攷事撮要例 書昇遐 "

27)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朱子綱目 君非正系 或女主 則王號君名 皆細書 故新羅之善德眞德眞聖 高麗之辛偶辛昌 一遵綱目 變例而書之"

업, 국경분쟁 및 전란, 특출한 문화사업, 중요서적의 편찬, 중요 인물의 죽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薨年과 후계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경우 후계왕비의 책봉 사실과 왕비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간혹 僻字기 나오는 경우는 음을 표시하였다. 지명의 경우 고대 지명 아래에 당시의 지명을 기재하였다, 예를 들면 신라 법흥왕 조에 나오는 阿尸良國의 밑에 今咸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고대 지명을 알 수 있는 지리정보원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4) 특이한 기록

『東國歷代總目』을 살펴보면, 간혹 특이할 만한 기록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金時習이나 鄭希良. 權韓 등에 관한 것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홍만종은 이들에 대한 사실을 엄연히 기록해 놓고 있다. 우선 이 세 인물에 대한 『東國歷代總目』의 기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金時習 關聯 條目

(大字) 金時習을 불러도 오지 않다.

(小字雙行) 시습의 자는 悅卿이고 호는 梅月堂이다. 3세에 글을 지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신동이 라고 칭했다. 5세가 되어서 세종대왕이 불러 政院에서 시를 시험하고는 크게 기이하게 여기고 비단을 하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단종대왕이 왕위를 선위하게 되자 거짓으로 미친 체하고 승복을 입고는 승명을 雪岑이라 하고 산천을 방랑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세조)이 그를 불렀으나 김시습이 명에 응하지 않고 뒤에도 여러 차례 부름을 입었으나 곧 도망가 버렸다[28].

- 鄭希良 關聯 條目

(大字) 전 한림 鄭希良이 도망갔다.

(小字雙行) 희량의 호는 虛菴이다. 무오년의 사화때 翰林으로 의주에 귀양갔다가 풀려났다. 일찍이 점을 잘 쳤는데 하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갑자년의 화는 반드시 무오년보다 심할 것이다."라 하고 드디어 도망가서는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지 못 한다[29].

---

28)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世祖大王條

"(大字) 召金時習不至 (小字雙行) 時習字悅卿 號梅月堂 三歲能綴文人稱神童 至五歲世宗大王 召致政院試之以詩 大奇之 賜帛還家 及端宗大往遜位 佯狂被緇 僧名雪岑 放浪山水間 至時上傳旨召之而時習不應命 後被屢召而至旋卽逃去"

29)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廢王燕山君條

"(大字) 前翰林鄭希良逃 (小字雙行) 希良號虛菴 戊午之禍 以翰林謫義州放還 嘗善推數 一日謂人曰 甲子之禍必甚於戊午 遂逃去 莫知所終"

• 權韠 關聯 條目

(大字) 시인 권필을 죽였다

(소자쌍행) 그때에 宮戚인 유희분 등이 정사에 참여하여 제멋대로 하자 권필이 시를 지었는데 "궁궐의 버드나무는 푸른데 꾀꼬리 어지러이 나네(宮柳靑靑鶯亂飛)"라는 구절이 있었다, 광해군이 이를 듣고 宮柳라는 두 글자가 궁척을 모멸하고 희롱한다고 하여 친히 국문하고 고문하였는데 귀양가는 도중에 죽었다. 권필의 호는 석주이고 뒤에 지평에 증직되었다[30].

주지하듯이 김시습은 생육신의 하나로 절개를 지켜 세조조에 벼슬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시습이 관련된 이 조항 앞에는 도성 안에 圓覺寺를 창건했다는 기사가 있다. 세조가 원각사에 가서 김시습을 불렀는데 김시습이 오지 않은 것이다. 사실 김시습이 천재적 능력을 갔고 있으며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절개를 지켰던 인물이지만 세조대왕 조의 개인적 기록으로는 김시습의 것이 유일하다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희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희량은 갑자사화를 예견하여 몸을 숨겼다는 전설적 인물로 도가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연산군 시절에 무오사화에서 갑자사화로 이어지는 암울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끝내 목숨을 빼았겼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 『東國歷代總目』에도 金宗直, 金馹孫, 金宏弼, 鄭汝昌, 南孝溫 등 당대의 석학들이 각각 追罪를 당하거나 살해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정희량이 이들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만종이 정희량의 비중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홍만종이 도가적 사상을 갖고 있던 인물이라는 점과, 그가 도가 인물들의 행적을 수록한 『海東異蹟』에 정희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긍이 간다.

권필의 경우는 더욱 특별하다. 광해군이 癸丑獄事를 일으키던 해의 1년 전에 권필은 죽음을 당한다. 권필의 죄안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유희분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왕이 직접 親鞫을 하고 권필이 귀양가는 도중 죽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기사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곧이어 延興府院君인 金悌男과 그의 외손자이자 선조대왕의 아들이며 광해군에게는 이복동생이 되는 永昌大君이 살해당하고 왕대비가 궁중에 禁錮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때에 권필의 기사가 수록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권필에 대한 홍만종의 애호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홍만종은 그가 저술한 전문 한시 비평서인 『小華詩評』에서 권필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권필의 최후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31].

---

30)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廢王光海君條

"(大字) 殺詩人權韠 (小字雙行) 時宮戚柳希奮等 預政專恣 韠賦詩有 宮柳靑靑鶯亂飛之句光海聞之 以宮柳二字爲侮弄宮戚 親鞫拷掠 發配道死 韠號石洲 後贈持平"

31) 洪萬宗, 『小華詩評』 下, 權韠 條

"蓋石洲之於詩 眞所謂天授者歟 惜乎 始以詩受知於宣廟 終以詩得禍於光海 士之遇時 其幸不幸如此哉"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홍만종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기사화할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을 충분히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典籍參考의 例

사실 洪萬宗이 『東國歷代總目』의 저술을 맡은 것은 대단히 의외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때 그는 낙척불우한 신세였으며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동정을 받지도 못했고 아직도 그를 비난하고 귀양 보냈던 세력이 행세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같은 사안을 맡게 된 홍만종은 뒤에 있을지도 모를 탄핵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는 이 저술의 객관적 정당성을 평가받기 위해 무려 14條에 달하는 凡例를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에 준하여 체재를 잡았으며[32] 崔致遠의 『年代歷』 權近의 『東國史略』·『國朝寶鑑』·『攷事撮要』·『三國遺事』·『高麗史』 등 당시의 구할 수 있는 사서를 최대한 수집하여 참고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그러면 檀君朝鮮 항목을 분석하여 홍만종이 典籍 및 史書를 참고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왕은 檀君이 유일하다. 단군에 대한 기사는 4조에 불과하지만 각 조항에 속한 주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먼저 항목명인 檀君朝鮮은 上欄의 한 글자 아래에 쓰여 있으며 단군은 上欄에 붙여 쓰여 있다. 檀君朝鮮 밑에는 한 글자의 공란이 있고 이어 '都平壤後都白岳'이라는 大字의 기사가 있다. 白岳 밑에 '白岳今文化九月山'이라는 쌍행의 주가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 주해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史記評林』과 『東史寶鑑』을 인용하여 '朝鮮'이라는 명칭을 해설하였다. 홍만종은 『史記評林』의 索隱을 인용하면서 '朝音潮 鮮音仙 以有汕水故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史記評林』을 확인해 본 결과[33] 홍만종의 인용이 정확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홍만종은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긴 기사만을 선택하여 수록했을 뿐이다. 『史記評林』 권115 朝鮮列傳 第 55에 의하면 朝鮮列傳이라는 항목 명 밑에 쌍행의 주해가 붙어 있다.

> 張晏曰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 取名於此也 ○索隱曰 按朝音朝直驕反 鮮音仙 以有汕水 故名也 汕一音訕

홍만종은 張晏의 말은 참고하지 않고 索隱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도 反切이나 音解는 고

32)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凡例.
"朱子綱目……一遵綱目變例而書之."
33) 凌稚隆(明)撰, 李光縉 增補.『史記評林』.130卷 12冊.

려하지 않았다. 홍만종이 張晏의 말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그가 樂浪朝鮮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낙랑조선은 중국에서 당시 고조선을 표기할 때 사용하던 말로써 자주의식이 강한 홍만종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東國歷代總目』에는 낙랑조선이라는 항목조차 없다. 그리고 反切과 音解를 인용하지 않은 것도 중국음과 우리의 음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참고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홍만종은 단군의 신비한 출생과정에 대해 『三國遺事』를 참고하였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록하였다.

> 按三國遺事曰 昔有天神 降于太白山頂 神壇樹下 時有一熊 祈于天神 願化爲人 遂得女身 乃乞有孕 天神乃交之 而生子 號曰壇君 蓋以其孕 生於神壇下故也

위의 기록을 보면 굳이 『三國遺事』 紀異 卷1의 고조선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원문을 인용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사실만이 간결하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만종은 옛 사서의 내용을 취사선택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설해 놓았다. 위의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三國遺事』에는 '壇君'이라고 쓰여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檀君과는 글자가 다르다. 홍만종은 이를 누락시키지 않았다.

> 내가 생각하기를 『三國遺事』는 바로 동방에서 맨 처음 나온 역사서인데 檀君의 檀字를 土 옆에 쓴 것 같으나 다른 역사서들은 모두 木 옆에 썼으므로 또한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 개를 같이 간직해 놓는다.[34]

箕子朝鮮 시대의 八條에 대한 기술방식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홍만종이 이 조목을 해설하면서 인용한 『漢書』와 『芝峯類說』의 원문을 확인하여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班固『漢書』, 卷28 下, 地理志 第 8下.
>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樂 田蠶織作 樂浪朝鮮 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傷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讐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 李睟光, 『芝峯類說』 卷2, 諸國部
> 箕子制八條之教 按漢書 相殺者以死償 相傷者以穀償 相盜者沒爲其家奴婢云 此八條中之三也 餘不可考 或疑竝五倫 爲八條云.

---

34) 洪萬宗, 『東國歷代總目』, 檀君條.
"愚意三國遺事乃東方始出之史檀君之檀似宜從土而諸史皆從木亦不敢任改今姑兩存之."

洪萬宗,『東國歷代總目』, 箕子條.

按漢書 相殺者以死償 相傷者以穀償 相盜者沒爲其家奴婢云 此八條中之三也 餘不可考 李睟光所著芝峯類說曰 或疑並五倫爲八條云.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홍만종이 한서의 기록을 참고한 것은 분명하나 전적으로 이수광의 기록을 옮겨 쓰고 있다. 그것은 한서를 발췌하여 기록한 이수광의 기사에 별달리 덧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서를 축약한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뒷부분, 즉 '或疑並五倫爲八條云'이라고 한 부분만 인용처를 확실하게 밝혀놓은 것은 이 부분은 홍만종 자신이 마음대로 전제해 쓸 수 없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홍만종이 전적과 사서를 참고할 때 엄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4. 引用書目 整理

홍만종은 대 저술가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東國歷代總目』을 저술하면서 방대한 이전의 전적과 사서를 참고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서는 물론 중국의 사서와 전적 심지어는 묘비명과 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록을 참고하여 자신의 저술을 뒷받침했다. 이것을 각 시대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5]

《各 時代別 引用文獻》

檀君朝鮮 -『史記評林』·『東史寶鑑』·『三國遺事』·『本紀通覽』·『東國通鑑』
『輿地勝覽』·『魏書』

箕子朝鮮 -『史記評林』·『大明一統志』·『柳州集』·『經世補編』·『漢書』·『芝峯類說』
『尙書大典』·『震旦通記』·『後漢書』·『魏略』·『輿地勝覽』

三韓 : 馬韓 -『李廷龜其崇仁殿碑略』
辰韓 -『通史』
弁韓 -『漢書』

35) 姜銓燮, "洪萬宗全集의 引用書目에 대하여",《洪萬宗硏究》, pp.489-490.

四郡 - 樂浪 -『歷代通攷』

三國 : 新羅 -『東史』·『通史』·『漢書』·『唐書』·『三國史記』·『梁史』
高句麗 -『東史寶鑑』·『高句麗 秘記』·『李穡咏貞觀詩』
百濟 -『東史寶鑑』,『三國史記』·『輿地勝覽』

高麗 -『東史寶鑑』·『輿地勝覽』·『芝峯類說』

朝鮮 -『中國歷代 總目』 ·『皇明事實』·『本朝事實』·『國朝寶鑑』·『列聖誌壯』
『攷事撮要』·『海東名臣錄』

地誌 -『漢書』·『東國地誌』·『輿地勝覽』·『中國續廣輿記(=廣輿記)』

Ⅴ.『東國歷代總目』의 價値와 意義

홍만종은 비록 정식 사관은 아니었으나 해박한 역사지식과 자주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서 중에서 특이한 저술인『東國歷代總目』을 지었다. 그러나 홍만종이 이 서책을 지은 당시에는 홍만종의 반대파들이 임금에 상소하여 서책의 배포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홍만종의 유배를 청하는 등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지평 김시환(金始煥)이 아뢰기를,
'본조(本朝)의 사실(事實)을 간행한 것으로서 비록 《국조보감(國朝寶鑑)》과 열성(列聖)의 지장(誌狀) 등의 책이 있으나, 일찍이 위호(位號)를 표열(表列)하거나 연월(年月)을 편서(編序)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사가(史家)의 범례(凡例)에 의거한 것은 진실로 꺼리고 피하는 바가 있어 참월(僭越)을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전 참봉(參奉) 홍만종(洪萬宗)이 찬(撰)한 《역대총목(歷代總目)》을 보았더니, 아조(我朝)를 승국(勝國)의 끝에 다 편차(編次)하였는데, 국초(國初)로부터 시작하여 당저(當'j')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열성의 휘호를 표열하고 아래로는 나라를 다스린 햇수를 기록하여 한 권의 사책(史冊)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적(事蹟)의 경우 강(綱)과 목(目)이 있는데, 혹은 아무개가 '졸(卒) 하였다.' 고 쓰기도 하고 혹은 '아무개를 주(誅)했다.' 고 쓰기도 하여 은연중에 포폄

(褒貶)하고 여탈(與奪)하는 뜻이 있으니, 그 참월(僭越)하고 무엄(無嚴)한 죄는 이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홍만종은 본래 자질구레하고 괴귀(怪鬼)한 무리로서 권문(權門)에 빌붙고 의탁해 종적이 궤비(詭秘)하여 사람축에 끼이지 못해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니, 그가 어찌 감히 책자(冊子)의 찬성(撰成)을 의논하는데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초 운각(芸閣)에서 찬집(纂輯)하도록 허락한 것이 이미 잘못인데다, 또 명나라 말기 사람들의 그릇되고 망령된 옛 예를 인용하여 이목을 덮고 가리는 계획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이와 같은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장차 사법(史法)을 엄격히 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간본(刊本)을 거두어 모으게 하여 전포(傳布)되지 않도록 하고, 편찬한 사람인 홍만종 또한 정배(定配)를 명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홍만종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묻겠다고 답하였다.[36]

김시환의 상소는 일단 보류되었다. 숙종은 보름 뒤 都提調 崔錫鼎과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최석정은 『東國歷代總目』에 약간의 褒貶과 與奪이 없지 않으나 刊印한 것이 많지 않아 번거롭게 될 우려가 없다고 궁색하게 변명하여[37] 이에 대한 논의를 잠식시켰다. 이 때는 당파간의 갈등이 치열하던 시기이므로 『東國歷代總目』과 홍만종을 비방하고 나선 김시환이 정당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38년 뒤인 영조21년에 다시 『東國歷代總目』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東國歷代總目』의 진가를 확인해주는 기록이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신이 이미 『『東國歷代總目』』을 보충하라는 명을 받들었는데 물러가 상고해 보니, 홍만종이 지은 것이 사략과 같아 사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만약 선조의 일을 보충하면서 사법을 쓴다면 구애되는 곳이 있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법이 있다면 어찌 보충할 필요가 있겠는가? 중지하도록 하라."하였다.[38]

잘 알려져 있듯이 영조는 서책을 극히 애호하여 출간을 장려하고 널리 배포하기에 힘썼던

---

36) 『朝鮮王朝實錄』, 肅宗, 33年 7月 戊辰.

"指平金始煥啓曰 本朝事實之所刊者 雖有國朝寶鑑 列聖誌狀等書 而未嘗表列位號 編序年月一 依史家凡例者誠有所諱避僭越 不敢故也 臣得見 前參奉洪萬宗 所撰歷代總目 則編次我朝 於勝國之末 起自國初以至當'j' 上表列聖徽號 下記享國歷年 作一史冊 而其餘事蹟 則有綱有目 或書以某人卒 或書以某人誅 隱然有褒貶與奪之意 其僭越無嚴之罪 已不可言 而況萬宗 本以么麼怪鬼之輩 附託權門 蹤跡詭秘 不齒人類 爲世所棄 則渠何敢與議於冊子之撰成乎 當初芸閣之許令纂輯 固是失着 而又引明末人謬妄之舊例 欲爲掩遮耳目之計 此而不懲 將無以嚴史法 而杜後弊 請令該曹 收聚刊本 俾勿傳布 所撰人洪萬宗 亦命定配……上不允 洪萬宗事 答以當問于大臣."

37) 『朝鮮王朝實錄』, 肅宗 33年 8月, 辛巳.

"崔錫鼎曰 故相臣琓 爲芸閣提調時 使洪萬宗 撰集東國歷代總目 令本館印出 書中略有褒貶予奪 而印出不多 固無煩傳之慮 萬宗雖有猥妄之失 定配則過 上曰置之."

38) 『朝鮮肅宗實錄』, 英祖 21年 3月丁丑.

"景夏曰 臣旣承東國歷代總目添補之命 退而考見 則洪萬宗之所撰 如史略頗用史法 今若添輔 先朝事 而用史法則有窒礙處矣 上曰 旣是史法 則何可使之添補也 其寢之."

'好學의 主'였다. 이런 영조가 『東國歷代總目』을 보고 보충하고자 하여 원경하(1698-1761)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원경하가 살펴보니 이미 완벽한 체제와 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진술에서 주목되는 것은 『東國歷代總目』이 史法을 많이 사용했으므로 더 이상 손 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숙종대에 김시환이 이 서책을 비난하면서 홍만종이 임의로 사법을 사용한 것을 강력 비난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김시환의 주장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비난이고 원경하의 지적은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연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홍만종의 『東國歷代總目』에 대한 평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서책이 출간된 당시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후세에는 나름대로 정당히 평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前間恭作의 『古鮮冊譜』에 수록되어 있는 「在山樓蒐書提要」의 '東國歷代總目' 항목에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 있다[39].

> 記述은 簡潔하고 要를 얻어 年代記로서도, 東土의 略史로서도 朝鮮五百年年 이와 比肩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古鮮冊譜』의 「金澤氏藏書目錄」에서도 아래와 같이 '東國歷代總目'의 특징을 적어 놓았다.

> 肅宗 31년 洪萬宗이 撰한 冊으로서 明人所撰의 『歷代總目』을 모방하고 그 재료는 『東國通鑑』, 『三國遺事』, 『高麗史』, 『國朝寶鑑』, 『攷事撮要』에서 뽑아 編纂했으며 檀君에서 李朝顯宗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編年史이다. 記事는 퍽 要를 얻고 다소 詳細한 年表에 類하여 便利한 冊이다 卷末에 地誌를 붙였다.

위의 기록을 보면 홍만종의 『東國歷代總目』은 서지학자들이나 역사가들에 의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편년체의 역사 기술 중에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 저술가로서의 홍만종의 면모와 그의 치밀한 저술 태도가 잘 나타난 예이다.

『東國歷代總目』이 갖고 있는 의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선시대의 역사까지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홍만종이 이 책을 저술한 것은 肅宗 33년이었는데 홍만종은 바로 전 왕인 顯宗까지 기술대상으로 삼았다. 『歷代總目』의 撰者가 명나라 말기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기술대상에 명의 章宗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만종도 이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顯宗의 사적까지 수록했다는 사실은 그의 저술의식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게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39) 大谷森繁, 前揭書, p.70에서 재인용.

Ⅵ. 結 論

玄默子 洪萬宗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 저술가의 한 사람인데 본고에서는 그의 역사서인 『東國歷代總目』을 분석하였다. 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함으로서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洪萬宗은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이었으나 그의 방대한 저작은 조선 후기의 전문 저술가 중에서도 굴지의 인물이다. 그는 특히 漢詩 및 漢詩 批評을 선호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역사와 풍습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2. 본고의 분석대상인 『東國歷代總目』은 그의 63세 되던 해에 당시 영의정이었으며 校書館의 提調였던 申琓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완은 찬자미상의 『歷代總目』이란 서적을 입수하여 그것을 보고 우리 나라의 역사도 그와 같이 강목체로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을 간추려 정리한 서적의 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洪萬宗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전문 저술가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완벽한 編年體 역사서를 저술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東國歷代總目』이다. 그리고 洪萬宗은 다음 해에 『歷代總目』의 보완본인 『增補歷代總目』을 著述하기도 하였다.
3. 洪萬宗은 기본적으로 道家思想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그의 도가사상은 自主論的 歷史認識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신적 배경이 된다.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산천 그리고 인물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세에서 자주성이 강한 『東國歷代總目』이 완성되었다.
4. 이 서책은 편년체의 체제를 갖추었으나 檀君을 한국 역사의 시작으로 比定하여 기술하였다는 사실이나 衛滿朝鮮을 인정하지 않고 箕子朝鮮을 정통으로 인정했다는 점등에서 홍만종의 자주적 역사의식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홍만종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참고문헌을 모아서 열람하고 그 중에 관련기록을 발췌하여 이 역사서를 저술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그는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엄정한 기준으로 객관적 사실을 유추해 내었던 치밀한 저술가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그가 인용한 서책만 해도 47종에 이른다.
5.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수록해 놓는 독자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東國歷代總目』은 기본적으로 『역대총목』의 체재를 본받아서 지은 것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있어서는 朱熹의 『綱目』을 전범으로 삼았음이 확실하다.

6. 『東國歷代總目』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역사서 중에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체를 얻은 저자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중의 하나는 자신이 활약했던 시대의 직전까지를 역사기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단군에서 조선 현종까지의 전 역사를 대상으로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사실을 매우 주목할 만하다.
7. 앞으로 이 『東國歷代總目』에 대한 보완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조선시대에 간행된 다른 역사서와의 비교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홍만종 자신의 저술 안에서 『海東異蹟』에서 『旬五志』로, 『旬五志』에서 『東國歷代總目』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역사관과 기술방식이 변천해 간 사실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鄭璘趾 等撰 . 『高麗史』.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영인본
鄭璘趾 等撰. 『國朝寶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영인본
權近 等撰. 『東國史略』. 京城: 朝鮮總督府, 1935. 영인본.
盧思愼 等撰. 『東國與地勝覽』. 서을: 민족문화추진회, 1966. 영인본.
徐居程 等撰. 『東國通鑑』. 京城: 朝鮮光文會, 1931. 영인본.
凌稚隆(明)撰, 李光縉 補. 『史記評林』.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
金富式 編. 『三國史記』. 京城: 古典刊行會, 1931. 영인본.
一然 著. 『三國遺事』. 京城: 古典刊行會, 1932. 영인본.
作者, 年代 未詳(明). 『歷代總目』. 姜銓燮 교수 소장본.
국사편찬위원회편. 『朝鮮王朝實錄』. 서울: 1986. 영인본.
李睟光 著. 『芝峯類說』. 서울: 을유문화사, 1994. 영인본.
班固 撰. 『漢書』. 서울: 경인문화사. 1975. 영인본.
洪萬宗 著. 『洪萬宗 全集』. 서울: 태학사, 1980. 영인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성남: 1991.
姜銓燮 編. 『洪萬宗 硏究』. 서울 민속사, 1998.
前間恭作. 『朝鮮 の 板本』. 서울: 보연각, 1968. 영인본.
全炯澤. "朝鮮後期 史書의 檀君朝鮮 敍述" 《韓國學報》 21권. 1980. 겨울호. pp.120-144